

만은 褐色이다. 胴部 以下에 格子打型文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口緣部 周圍는 돌아가면서 조금씩 조개져 있으나 원래부터 인 것 같다.

三、三脚杯 五個、높이 六cm 前後

이 三脚杯는 百濟系統의 土器에 特有한 것이다. 보통 흔히들 뚜껑을 가진 蓋杯의 形式으로 만들고 있으나 이 곳에는 뚜껑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중 네 個는 口緣部의 形態로 미루어 보아 원래부터 無蓋로 만든 것이 分明하였다. 나머지 하나는 有蓋式인 것 같으나 蓋를 잃고 있다. 全部 黑灰色、質은 제일 단단하게 구워져 있었다. 有蓋式의 器身에는 黑色釉가 한방울 떨어지지 쓰워진 것처럼 두 점씩 붙어 있었다.

四、臺가 달린 杯 一個、높이 八cm

낮은 臺가 달려 있으나 그 以外에는 아무 裝飾도 없다. 有蓋式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蓋를 잃고 있다. 三國時代 新羅古墳에서 흔히 出土되는 高杯가 退化한 것같은 形式이다.

五、장군 一個、높이 二八cm

黑灰色 全面에 繩文이 있다. 아가리 양쪽에 끈을 달 꼭지 두 個를 만들어 붙였다. 양 끝이 모두 동글게 만들어져 있다.

發見者의 말에 依하면 이들은 땅 속에 별다른 構造나 施設도 없이 한 군데에 파묻혀 있었다고 한다. 筆者도 實地로 現場을 調査하고 좀 파보기도 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痕跡도 찾지 못하였다. 다만 現地表에서 約一·七〇m의 깊이에 達하는 地山 一部에 平面이 橢圓形에 가까운 구멍을 파 놓은 자리만 確認되었을 뿐이다. 이 구멍은 長徑을 南北에 두었는데 그 길이는 約一·二〇m、이에 對하여 東西의 폭은 제일 넓은 데서 八〇cm 前後가 되었다. 단단한 地山에 파고 들어간 깊이는 四〇cm가량 되나 보였다. 바닥은 판판하게 만들었는데 發見者들의 이야기로는 이 바닥 全面을 차지해서 土器가 適當히 配列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順序는 똑똑치 않았으나 한복판에 제일 큰 항아리를 얹어 놓고 있었다고 한다.

以上 이들 土器의 出土狀況에는 未審한 點도 적지 않으나 아무튼 한 군데서 發見된 一括遺物인 만큼 그 資料로서의 價値는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出土된 遺蹟의 性質이 너무나 特殊해서 異常하게 느껴 지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現地에서 見聞한 바를 그대로 記錄하고 後考를 기다리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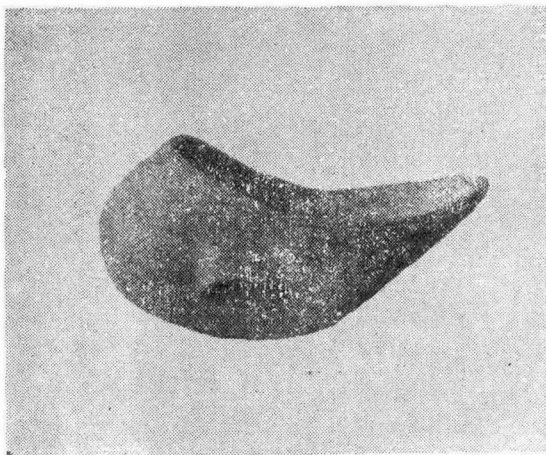
軍守里 出土 百濟土器

洪 思 俊

이 陶器는 一九五九年 三月 五日 扶餘邑에서 머지않은 軍守里에서 出土되었으며 扶餘水利組合 水路開鑿을 하다가 偶然히 人夫의 손으로 採集한 것이며 筆者가 扶餘博物館으로 옮겨온 것이다.

그릇의 바닥은 동글고 一端은 圓形이지만 他端은 뾰족하게 되었으며 위에서 보면 개구리가 입을 크게 벌린 것처럼 되어 있다. 容器의 形態로 보아 液體를 담아 他器에 따르는데 使用된 것 같기도 하나 뾰족한 流部가若干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病院에서 使用하는 따위의 便器처럼 使用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物件 自體의 製作한



軍守里出土 百濟土器

品度로 보아서 平民이 使用한 듯하며 陶器 內外區에는 窯中에서 부푸러 오른 곳이 군데 군데 있다. 器의 左右長壁에 各一個씩의 손잡이가 附着되었는데 그 크기는 三指가 들어갈 程度이다. 口緣에는 外側으로 二條의 陰刻線이 돌러 있다. 百濟土器의 滋味있는 一例로서 簡單히 紹介해 둔다. 全長約 四〇浬, 幅 一八浬

考古美術 卍—스

龍珠寺 大雄殿 佛幀의 調査攝影

檀園金弘道の 最大作品으로 보이는 三世佛幀은 七月中旬 全釜彌, 崔淳雨, 黃壽永 三人과 來韓中인 코난—트 夫妻에 의하여 調査되었고 同月 三十日 三十一日 兩日間 全幅과 細部의 原色攝影이 關係當局의 協助로서 完了되었다.

石塔 修理

1. 慶州 陽北面 獐項里 塔亭의 廢塔(東塔)材는 日帝時 舍利具 奪取로 破壞되어 溪谷에 顛落되어 있던 것을 昨年度에 收拾하였다. 颱風으로 流失되어 今年 七月에 再集結하였는 바 八月 八日 黃壽永, 鄭永鎬 兩氏의 現場調査에 依하면 屋蓋石五 第一塔身 上下基壇中石이라는 바 압으로 그 保存이 要望되고 있다.
2. 淸道 豊角面 國寶 第一八四號 三層石塔은 八月 十一日 解體되었는 바 第三層 塔身에 圓孔이 있으나 舍利具의 發見은 없었고 同工事에는 黃壽永, 秦弘燮 兩人이 現場을 調査하였다.
3. 慶北 聞慶郡 山內面 內化里所在 國寶 第六九號의 三層石塔은 日帝時 破壞되었는 바 今年 八月 慶州博物館 秦弘燮 館長의 監督下에 再建케 되었다.

長谷寺 大雄殿 修理

國寶 第二七二號 및 三〇一號 忠南 靑陽 長谷寺 上下大雄殿은 內部の 佛像 및 博바닥을 除外하고 其他 各部分의 全般的 修理를 今年 二月부터 着手하여 이번 에 그 完了를 보았으며 八月 十九일부터 二十일에 걸쳐 國立博物館 林泉 氏가 工事完了 檢査를 하였다.

望海寺址 石造浮屠 補修工事

慶南 蔚山郡 靑良面 栗里에 있는 國寶 第二九一號 石造浮屠 二基中 破壞된 一基의 再建工事가 實施케 되어 文教部에서는 國立博物館 學藝官 尹武炳 氏를 工事 監督官으로 任命하였다.

百濟遺跡의 調査

昨年秋 扶餘邑 佳增里 밭갈(栗洞)에서 人蔘苗圃 設置中 建物址가 露出되고 土地所有者 洪恩云에 의하여 瓦博類(蓮花紋內瓦, 極瓦, 無紋博 印銘平瓦)가 發掘 그 一部가 散逸된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今年 一月과 七月 兩次に 걸쳐서 扶博 洪恩俊 館長과 黃壽永 兩氏의 現地調査와 遺物收拾이 있었으며 今後의 發掘을 期하여 保護中이라 한다. 同 遺跡은 東向한 小崗의 臺地로서 前面이 廣闊하고 東北으로 錦江을 指呼하는 位置인 바 百濟末期 西紀 七世紀 初頭의 寺址로 推定되었다. 또 이 곳서 山등을 넘어 西南方의 山麓에서 百濟蓮花紋圓瓦가 出土되어 建物址로 注目되었다.

東岳寺에서 金銅菩薩立像 發見

慶北 醴泉邑 東岳寺 境內에 있는 石塔基壇 附近에서 今年 七月 一九日 整地工 事中 佛像 一軀을 發見하여 文教部에 報告되었다. 이 佛像是 身高 七·一cm, 光背高 八·七cm의 金銅菩薩立像으로서 三國時代 末期나 新羅時代 初期에 屬하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長谷寺 上大雄殿 鐵造 藥師如來 腹藏品

靑陽 教育廳의 李殷昌氏가 靑陽 長谷寺 上大雄殿 西壁에 있는 조고만 보기 흉한 土製 藥師如來의 두터운 表面 內部와 腹藏品을 調査한 結果 內部에서 나타난 原佛은 高麗時代의 鐵造藥師로 判明되었으며, 腹藏品은 各種 念珠 및 藥草, 妙法蓮華經(七卷)等인데 蓮華經은 一但 製本된 것을 모두 解冊한 未完本이며 刊年은 不明이나 李朝初期의 刊本 같고 함께 나온 板刻 隨求文에는 正德十三年(中宗十三年, 一五一七年)이라는 刊年이 있었다.

美術資料 發刊